DOI: https://doi.org/10.25202/JAKG.11.2.1 한국지리학회지 11권 2호 2022(183~200)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과 지리학: 지리답사와 해외활동의 다변화*

권상철**

Community Engagement and Geography: Diversifying Domestic Fieldwork and International Volunteering*

Sangcheol Kwon**

요약 : 대학은 교육과 연구에 기반한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서비스-러닝은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봉사를 더하는 활동으로 시작되어 최근에는 비판적 안목과 장소 기반 참여를 통해 지속적인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 관계를 강조한다. 지리학과 지리교육은 지도 제작과 현장 답사를 중요한 학습 활동으로 포함하는 지역사회 협력에 적합한 전공이다. 지리답사는 교실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 조사와 지도제작을 포함한 현장 연구의 지역사회 협력을 강조하는 지역사회 지리를 발전시키고 있다. 제주대학교의 사례는 지리답사를 지역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이 현장 조사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보고서 완성까지를 목표로 진행했다. 해외봉사활동은 보편적인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지역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민과 라포를 형성하며, 공공 자료를 얻고, 현지 그리고 참가 학생 대상 설문 조사를 실시하며, 봉사활동을 자선적 접근에서 정의적 안목으로 발전시키는 참여적 지역사회 협력의 기초 활동으로 변화시켜보고자 했다.

주요어 : 서비스-러닝, 지역사회 협력, 지역사회 지리, 국내 지리답사, 해외활동

Abstract : Universities have a tradition to contribute to community by providing services along with teaching and research. Service-learning has begun to promote effective learning while giving helping hands to local problems. Recently, service-learning has evolved to emphasize critical approach and place-based community engagement for sustainable collaborative partnership between university and community. Geography is good discipline to work with community engagement through mapping and fieldwork which are essential part of the curriculum. Fieldwork is important to explore the phenomena learn from classroom in real world, but community engagement with local survey and mapping, and action research leads to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geography. Introduced are local and international fieldwork attempts by Jeju National University. A fieldwork focuses on a local problem with population decline; students participate in-depth local interview survey, and put the gathered information into completing a research paper. University international volunteering usually includes teaching classes in developing countries, but efforts to understand locales including data gathering, survey and questionnaire enhance critical over compassionate approach and community engaged activities.

Key Words : Service-learning, Community engagement, Community geography, Geography fieldwork, International volunteering

*이 논문은 2021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kwonsc@jejunu.ac.kr)

I. 서론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 교육, 연구와 더불어 봉사를 기본 이념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세계적 차원의 경쟁 심화와 위기 상황은 대학이 연구와 교육보다 재원 확보와 취업률 제고와 같은 일에 치중하도록 만들었으나 최근 대학 본연의 역할은 사회적 책무 강화로 되살아나고 있다(Shek and Hollister, 2017; 김창환, 2020). 교육과 연구는 대학의 오랜 전통으로 사회공헌으로 이어지지만 봉사는 보다 직접적으로 이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강조된다. 서비스-러닝은 교육을 봉사와 연계하는 구체화된 실천으로 대학 교육과정에 포함되며 확대되고 있다(Stanton *et al.*, 1999; Willse *et al.*, 2020).

서비스-러닝은 대학 교육 방식의 변화이자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교육 방식으로 등장했다. 그 배경은 대학교육이 현실과 거리가 있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학생들은 자신의 경력과 관련된 과목만을 수강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일부 대학이 봉사를 교과의 일부로 포함하며 시작되었다. 이후 서비스-러닝은 대학 평가에도 반영되며 확대되는데,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봉사를 포함하는 시작에서 점차 교육과 봉사를 동등하게 강조하며 비판적 학습과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중시하는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Yamamura and Koth, 2018; 권상철·오정훈, 2021). 대학교육의 이러한 변화는 국내에서도 봉사활동의 확대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 지역 기반 학습을 포함한 강좌 개설로 나타나고, 일부는 대학의 지역사회 참여가 산학 협력의 형태를 강조하며 대학의 사회적 공헌이 넘어서야 할 신자유주의적 접근과 혼용되어 수용되기도 한다(김의영, 2016; 이태동 등, 2017). 최근 서비스-러닝은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봉사를 교과 활동으로 수용하며 사회 인식에서 문제 해결의 참여까지를 포함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지리학은 이러한 대학교육 변화에서 전통적으로 지역 기반의 학문으로 지역사회 참여를 강조했으며, 지도제작과 지리답사는 특히 지역사회 협력에 적합한 교과 내용이다. 지리답사는 교실에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지만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활동이나 문제해결 학습을 포함하여 다변화시킬 수 있다(France and Haigh, 2018). 또한 지역사회의 특정 주제에 대한 조사 활동과 지도화 작업은 최근 지역사회와의 협력 활동으로 확산되고 있다(Jung, 2018; Pedregal *et al.*, 2020; Shannon *et al.*, 2021). 이러한 변화 노력은 지리학의 현장 학습 활동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전개하며 지리교육의 내실화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기회를 확대시킬 것이다.

이 글은 대학의 교육 내실화와 사회적 책무를 위해 강조되는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소개하고, 이러한 대학교육의 변화에 비추어 지리학에서의 교과 활동인 지도제작과 지리답사를 학습 효과 진작과 지역사회 협력 활동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어서 제주대학교의 경험을 사례로 지리답사와 해외봉사활동을 지역사회 협력이자 보다 효과적인 교육 활동의 일부로 자리잡게 하기 위한 시도로 소개해 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 활동은 대학별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아직 확대할 필요가 있어 대학별 경험의 공유는 새로이 적용할 때의 장벽을 낮추고 확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해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노력에 도움을 줄 것이다.

II. 대학과 지역사회

1. 대학교육의 변화: 서비스-러닝과 지역사회 협력

대학은 교육, 연구와 더불어 봉사를 기본적 이념으로 추구하는데, 봉사는 가장 늦게 추가된 이념으로 미국에서 시작하여 전세계로 확대되었다. 대학의 교육과 연구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사회 공헌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지만, 대학교육이 대중화되고 세계화된 경제는 대학을 취업과 순위 경쟁의 분위기로 몰며 봉사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대학이 노동력 재생산과 같은 직업 중심 교육으로 변화하며 신자유주의적인 교육 목표에 비판을 가하며 내부적으로 자성론이 일게 된다(Stanton *et al.*, 1999; 안상훈 등, 2020). 미국 대학은 1990년대부터 현실과 분리되고 이론 중심으로 진행하는 교실 수업을 넘어 지역사회의 빈곤, 불평등 등의 현실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에 참여하는 활동을 전개하며 대학 본연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Allahwala *et al.*, 2013; Dostilio, 2017).

대학의 봉사를 통한 사회공헌은 일찍이 미국의 토지 양여대학(land-grant university)에서 기술과 대중 교육을 위해 시작하였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세계화된 경제 상황은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자신의 취업을 스펙만들기 과정으로 여기게 하며 대학 본연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대학의 이념에 봉사를 포함시킨 미국은 1990년대 초 일부 대학 총장들이 교육과 봉사를 겸한 서비스-러닝(service-learning)을 시작하고, 대학의 봉사는 모두가 그 가치를 인정해 순식간에 500개 이상의 대학이 참여하게 된다. 참여 대학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대학협의회(Campus Compact)를 결성하여 운영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공개하며 서비스-러닝은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이후 참여 대학의 평가에 서비스-러닝 운영 관련 교과목 수, 운영 지원 등을 포함하며 질적 향상으로도 이어졌다(Welch and Plaxton-Moore, 2019). 이러한 변화는 전세계적 현상으로 대다수 국가의 대학이 독자적으로 그리고 연합하여 사회적 책무를 사명으로 추구하고 있다(Abbas *et al.*, 2017).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은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닿지 않는 영역을 대학이 사회적 책무를 통해 메꾸는 활동이자 대학교육에서 학생들이 사회 정의와 불평등 문제를 고민하는 비판적 사고와 지식, 기술의 적용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기도 하다.

대학교육의 내실화와 지역사회 봉사를 결합한 서비스-러닝은 지역기반학습(community-based learning), 참여 또는 경험학습(experiential learning) 등 다양하게 불리는데 초기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던 서비스-러닝에서 점차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관계를 강화하며 지역사회 발전 또한 중시하는 지역사회 협력(community engagement)으로 발전하고 있다(Yamamura and Koth, 2018). 서비스-러닝은 초기 수업의 일부를 현장 활동으로 구성해 학생들에게 현실 세계를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빈곤 등 문제 중심의 활동은 빈부격차 등을 단순한 차이로만 인식하고 자선적 태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이해 접근을 강조한다. 이는 현장에서 관찰할 수 없는 이론과 관점을 사전 교육 그리고 성찰 과정을 통해 지역 사회의 현실과 변화 가능성을 이해하며 비판적 그리고 세계시민 안목을 강조한다. 또한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을 모색하는 노력은 분야보다 지리적으로 특정의 장소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과 지역이 긴밀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측면을 강조한다(Siemers *et al.*, 2015; Rees *et al.*, 2020).

한국의 대학교육에서 서비스-러닝은 국내, 해외에서의 봉사활동을 수업 활동과 연계하는 형태로 대다수 교양과목으로 진행된다(배서현, 2017; 안미리, 2018; 손가현·김유나, 2020). 이들 교과는 학생들이 사전 교육과 활동 후 사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가치와 태도의 변화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자아와 시민성 형성의 교육적 효과를 제시한다. 이상적으로 학생들은 현장 활동의 직접 경험을 통해 현실 사회와 세계를 알게 되고, 이 과정에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사고와 능력을 키우는 기회를 갖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자신의 시간, 재능을 사용하는 현장의 자원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더 나은 세계 만들기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된다(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2011).

이러한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은 참여 활동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이며 동시에 대학 본연의 봉사 책무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며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는 활동을 지역 주민, 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하며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노력으로 의미가 크다.

2. 대학과 지역사회 발전

대학은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대학 배후 지역의 사회조직과 호혜적 관계를 형성하며 상호 발전을 지향한다. 교육 측면에서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지식 교환 및 문제 발굴, 해결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는 기회를 갖는다. 지역사회 협력 활동과 그에 따른 참여자들의 성과 등 경험 사례는 새로운 대학의 참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요한데 특히 교수계획서, 활동 과정과 결과의 공유와 출간은 실질적인 운영에 많은 도움을 준다.[1)]

대학의 지역사회 봉사는 하향적이 아닌 지역사회와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적 관계를 형성할 때 다양한 협력 활동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은 주로 주변 학교와의 교류가 중심을 이루고, 과학, 수학, 보건 등 다양한 분야가 참여한다(Allahwala *et al.*, 2013; Driscoll, 2014). 빈곤 지역에서의 교육 활동과 보건 진료는 대상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높여 대학 진학을 유도하는 활동을 중요시한다. 지역사회 협력 참여 대학생은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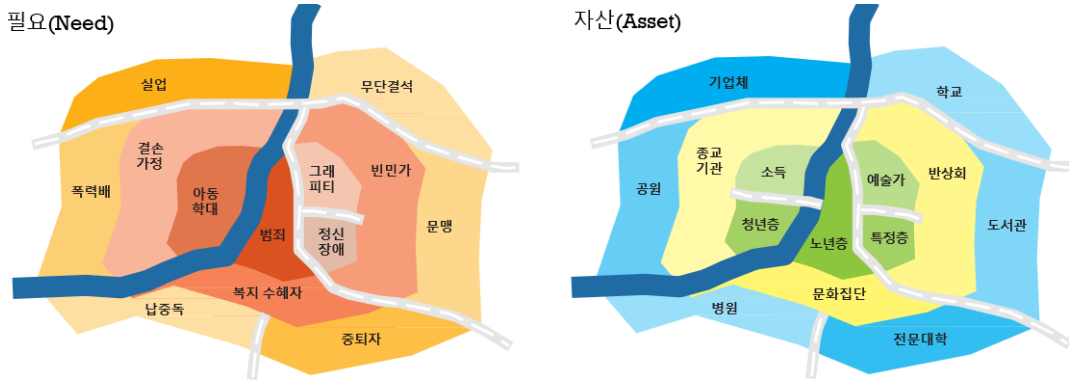


그림 1. 지역사회 필요와 자산 조사 지도 사례

출처 : Indianapolis Neighborhood Resource Center, 2012.

공 교육, 다문화 이해, 비판적 사고, 지도력과 소통 능력 그리고 시민성 함양 등이 성과로 언급된다(McEwen, 2013; McPhee and Przedpelska, 2018). 대학 전체적으로는 교수, 학생 및 지역사회가 협력하며 교육과 연구 활동을 풍요롭게 하고, 학생은 학습을 심화하고 시민 의식을 높인다. 지역사회는 요구 사항을 널리 알리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복지를 개선한다.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은 교수와 학생의 소통을 향상시키고 대학과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활동들은 대학의 여러 전공 분야가 참여하며 종합적으로 지역사회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Haines, 2009; Garcia, 2020).

대학의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은 1980년대 미국의 탈산업화로 쇠락하는 도시 지역의 실업, 열악한 주거 상황 등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하며 촉발된다. 노스웨스턴대학 연구진은 대안을 모색하며 시카고의 빈곤 지역에 대한 외부의 하향식 지원보다 지역내의 자산과 역량을 발굴하는 상향식 접근을 시도한다(Garcia, 2020). 초기 연구진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3000개 이상의 이야기를 수집해 이들로부터 공통점을 도출하는데 여기에는 지역주민들의 숙련된 기술, 단체의 역량, 공공과 민간 등 기관의 자원, 물리적 그리고 경제와 문화 자원 등을 지역 자산으로 고려했다(Kretzmann and McKnight, 1993).[2)]

지역 자산은 발전의 잠재력으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장소에 기반한 거버넌스를 지역 내 대학, 학교, 협회와 기관 등이 협력하여 형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여기에 대학은 지역 조사를 통해 자산을 발굴하고 환경정화, 평생교육 등의 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결속과 발전의 토대로 역할을 한다. 대학은 지역단체와 협업하여 지역사회의 필요(need)와 자산(asset)을 목록화하여 지도로 나타내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자산기반지역발전(Asset Based Community Development)으로 불리며 점차 확산되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적용하고 있다(Haines, 2009; Garcia, 2020).

자산기반지역발전은 지역 내의 다양한 사회자본을 발굴하여 잠재적 가치를 알리는 활동이 기초 작업으로 지역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화하는 작업으로 이어진다. 지도 제작은 지역의 잠재력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어 참여를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지역 자산을 발굴하는 데는 많은 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이야기를 채집하는 방식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대학생의 지역사회 참여 수업과 병행하는 것이 대학과 지역사회 모두가 혜택을 보는 방법이 될 것이다(그림 1).

지역사회 협력에 적극적인 대학들은 대학 목표에 이를 명시하고, 지역사회협력센터(center for community engagement)를 설치하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와 소통하며 필요한 협력 활동을 수집, 발굴하여 서비스-러닝 교과의 운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Dostilio, 2017). 이러한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 노력은 재정 지원과 더불어 서비스-러닝 교과 운영에 참여하려는 의욕을 가진 교수들에게 협력 분야와 수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선도적인 사례 대학으로 포틀랜드대학교는 캠퍼스 내 곳곳에 '지식의 도시 봉사(Let

knowledge serve the city)' 슬로건을 게시하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립대학의 경우 설립 목적이 부합하는 경우 매우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협력에 참여하는데, 특히 특정 장소와의 다양한 지역사회 협력을 진행하며 지속성을 강조하며 관심을 얻고 있다(Yamamura and Koth, 2018).

최근 국내 대학도 서비스-러닝 학습 경험을 학교 홈페이지 또는 단행본 책자 출간으로 공유하고, 대학 차원의 사회공헌을 확대하며 지역사회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2011; 이태동 등, 2017; 안상훈 등, 2020). 사례로 서울대학교는 대학 차원에서 2013년 글로벌사회공헌단을 창설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생'을 표방하며 사회공헌 교육과 국내외 사회공헌 실천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와 조사 활동을 비교과 그리고 교과의 일부로 운영하고 있다.[3] 그러나 국내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은 아직 일부 대학, 서울 지역 그리고 정치학 분야에 한정되어 진행되는 모습이다. 또한 대학 교육의 서비스-러닝이 발전하며 강조하는 비판적 그리고 지속성을 강조하는 협력 지향의 측면은 아직 부족하고, 학습 효과와 지역사회 서비스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노력도 아직 학습 효과에 치중한 단계로 나타난다(권상철·오정훈, 2021).

대학의 지역사회 참여는 초기 학습 효과 진작을 위한 서비스-러닝으로 시작해 비판적 안목을 더하고 장소기반의 다면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주변 지역과의 협력 관계는 미국에서 장소 청지기정신(stewardship of place)으로 언급한다(Dostilio, 2017). 특히 주립대학은 재정의 상당 부분을 공적 자금으로 충당하기에 공공성을 대학 이념의 중요 가치로 설정하고, 실천은 재정을 지원하는 지방정부의 지역 문제에 대한 책무 이행으로 수행한다. 장소 청지기정신은 대학이 지역사회와 상호 작용하며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와 기회를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을 지향한다.[4]

3. 지리학과 지역사회 협력

지리학 분야에서의 지역사회 협력은 지역 조사의 오랜 전통에 기초해 최근 교수,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지역사회의 현안을 조사하고 지도화하는 참여지도제작(participatory mapping) 활동으로 나타난다. 이는 기존 지역조사에 기반한 자산 지도에 지리학의 지도 제작 기술을 접목시켜 다양한 지역 현황과 현안을 보다 정확하게 시각화하여 공유하는 활동이다. 지리학이 가진 이러한 지역사회협력의 특징은 최근 여러 지리학회지 특집호 발간으로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며 참여와 확대를 독려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5]

지리학의 지역사회 협력은 그 시작을 1970년대 초 지리학자 Bunge가 이끈 디트로이트지리탐험연구소(DGEI)에서 찾는다(Grabbatin and Fickey, 2012). 이 연구소는 디트로이트 도심 지역의 도시계획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며 현지 조사를 통해 도시 구역 지정에 참여했다. DGEI는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과 지역 개선을 도모한 사례로 언급된다. 이러한 전통의 최근 사례로는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의 지리학과 교수가 필라델피아시 소재 대학과 협동으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학생들과 진행한 필라델피아 지역사회의 빈곤 감소와 관련된 활동을 들 수 있다(Hovorka and Wolf, 2009). 대학의 지원으로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모든 참가 학생들에게 현장 참여 이전에 빈곤은 어떻게 개념화되고 측정되는가에 대한 이론 수업을 진행하고 감소 방안에 대한 과제를 제기했다. 목표는 현장 경험을 통해 빈곤을 재정의하고 소득에만 기반한 정의에 도전하고, 가정경제, 영양과 보건, 및 교통수단 등의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론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었다. 지역사회 협력은 해외 지역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진다. 대표적으로 덴버대학교 지리학과의 과테말라 자연자원의 정치생태 과목에서 학생들에게 글로벌 개발 프로그램의 불평등을 인식시키며 소외된 계층에 식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했다(Taylor, 2020). 이 과목은 대학의 지원으로 단기적으로는 지역사회에 점토 정수 필터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이 빗물 및 안개를 수집하는 장치와 정수 필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워크숍을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진행했다.

지리학의 지역사회 협력은 현지 조사와 지도 제작의 기술적 측면과 더불어 개념적 사고까지 포함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지리학은 실제 지역에 기반을 둔 학문 분야로 지역사회 협력은 수업에서 현실 문제를 다루며 지리 지식과 기술을 접목해 문제해결을 지향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참여 수업은 교수와 학생 간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는 지리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며 학생에게는 경험 학습, 교수에게는 지역 연구의 기회를 제공해 지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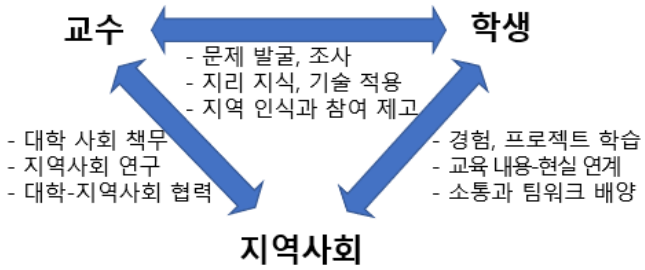


그림 2. 지리교육 교수–학습과 지역사회 협력

출처 : Bednarz *et al.*(2008) 연구자 재구성.

회 문제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며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한다.

지리학은 현장 답사를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포함하고 있어 더욱 지역사회 협력 활동을 전개하기에 유리하다. 자연지리의 경우 답사지에서 조사 활동도 일부 이루어지지만, 인문지리의 경우 수업 내용으로 다룬 인구, 도시, 경제 관련 내용을 현지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최근 확대하는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에 비추어 지리학과 지리교육도 비판적 그리고 지역 기반의 탐구적 학습과 참여를 강조하는 활동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Spalding, 2013; Ozias and Pasque, 2019).

III. 지리학과 지역사회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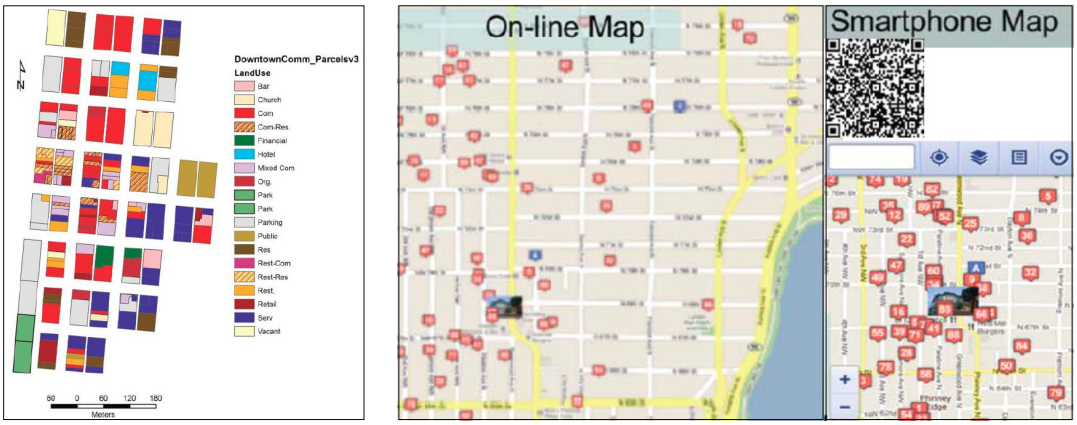
1. 지역사회지리(Community Geography)

지리학 분야의 지역사회 협력은 최근 지역사회지리(community geography)로 정리되고 있다. 지역사회지리는 지리학자와 지역사회 참여자가 협력하여 새로운 현장 지식을 만들어 가며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활동으로 정의하며, 참여적 연구 방법을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 환경 문제 등을 중요하게 다루는 실천으로 나타난다(Rees *et al.*, 2020; Shannon *et al.*, 2021).

지역사회지리 용어는 2005년 시라큐스대학에서 공식적으로 지리학과 교수진과 지역 비영리 단체와의 기아 대책 협력 활동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 시작은 1980년대 후반 시카고 남쪽의 시카고주립대학이 주변 지역 지원 활동을 지리학과에서 주도하여 진행한 것에서 찾는다(Shannon *et al.*, 2021). 시라큐스대학의 지역사회지리는 대학의 지원으로 난민들의 도시 농업 활동 지도,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체 및 서비스 위치 분석, 양조 회사와 같은 지역 과거 산업에 대한 역사적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정착되었다. 모든 활동은 초기 단계부터 대학과 지역사회가 참여하고 지역사회 이익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대다수의 활동은 서비스-러닝 교육 모델에 따라 학부생을 포함하고 지리정보체계(GIS)와 문제해결학습을 통해 지리적 사고 및 방법의 적용과 실천을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은 후속 지역사회지리의 모델이 되었다(Shannon *et al.*, 2021).

지역사회지리는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지도화 작업을 진행하는 지역사회지도(community mapping)를 핵심 활동으로 한다(Robinson *et al.*, 2017; Shannon *et al.*, 2021). 지역사회지도는 전문성과 비용이 요구되는 GIS 소프트웨어가 아닌 무료 제공 웹서비스를 이용해 다양한 지역사회의 현안을 다룬다. 대학생과 주민은 현장 학습 활동과 지역사회 개선을 위해 필요, 불편사항을 수합하고, 특정 안건에 대한 주민 의견 조사와 면접을 실시하고, 이들 자료를 수합하고 분석하여 지도로 제작해 공유한다(Fischer *et al.*, 2021). 이러한 참여 지도제작은 지역사회의 문제와 더불어 자산도 발굴하며 정체성과 잠재력을 확인하는 활동으로 의미가 있다. 사례로는 도시지리 과목 수강 학생들이 도심의 주차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수합, 정리하여 지도화하여 시 행정에 도움을 주고, 중고물품 거래 장소를 지도화하여 주민들을 소통시키는 활동, 소지역 단위 환경 갈등의 지도화(Gribb, 2018; Jung, 2018; Pedregal *et al.*, 2020), 그리고 국내의 경우 초·중등 교육 활동의 일부로 진행한 사례를 들 수 있다(구순옥·남상준, 2019; 김형숙·이종원, 2021).

지리학의 지역사회 참여는 지도제작과 지리답사를 통



(a) 주차장 공간 조사 결과 (b) 중고거래장소 분포 지도

그림 3. 지역참여 GIS 지도제작 사례

출처 : Gribb, 2018; Jung, 2018.

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 차원의 활동에도 지리학자를 구성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보편적이다.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수집된 자료를 지도로 제시하는 활동은 지역사회의 입장과 목소리를 드러내는 방법이다. 협력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과 성과는 지역사회 구성원과 외부의 관심을 높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지속적인 활동으로 다양하고 누적된 자료는 지역사회 주민들 간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사회적 자본으로 역할 할 수 있다(Haines, 2009; Fischer *et al.*, 2021).

최근 지역사회지리는 일부 대학 지리학과에서 주도하지만, 자신들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며 확산을 기대하는데 지역사회 빈곤, 급식 지원소, 환경 악화 등 다양한 문제 중심의 활동에 교수, 학생 및 지역 단체가 함께 참여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현장 자료를 수집하고 모두가 참여하여 지도로 제작하고 이들의 공간 분포의 적합성을 드러내며 사회적 수요에 기여하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다.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사회 정보와 지식을 누적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지리학 분야의 활동은 공공성을 강조하는 대학의 시민참여 교육 목적에 크게 기여한다.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은 대학의 사회책무를 실현하는 핵심으로 이를 독려하기 위해 대학과 정부 차원의 지원은 확대되고 있다(Driscoll, 2014; Robinson *et al.*, 2017). 미국의 경우 최근 시작된 지역사회 지리는 대다수 프로그램을 대학, 지역사회 그리고 정책결정자의 협력에 의존해 진행한다. 대학은 참여 학생의 지도화 작업으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시간 투입과 전문성을 지원한다. 대학교육 측면에서 이러한 활동은 비판적 서비스-러닝에서 추구하는 변혁적 교육으로 다변화할 수 있는데 미국의 대도시에 위치한 대학들의 경우 대학 주변의 노숙자 등의 빈곤 문제, 젠트리피케이션 등을 중요한 비판적 교육의 현장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작업 과정의 각 단계에 지역사회 구성원은 지역 공동체 참여 의식을 높이고, 그 결과물은 현장의 직접적인 정보로 사회적, 정치적 결정에 반영되어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

지역사회지리는 참여 연구와 활동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실용주의에 기반해 사회적 탐구를 추구하고 이론과 실천의 상호 작용에 기초하여 귀납적 연구 과정 전반에 걸쳐 행동과 성찰을 강조한다(Cahuas and Levkoe, 2017; Shannon *et al.*, 2021). 이는 서비스-러닝이 현장에 기반한 사회적으로 적합한 교수와 학습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이며 대학의 사회 책무감을 재정립하고 미국 대학에서 시작한 것과 같은 목표를 지향한다(Dostilio, 2017; 권상철·오정훈, 2021).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사회지리는 지도제작의 주제인 문제 발굴에 비판적 안목을 더하고, 범위도 주변 지역사회에서 해외까지로 확장하고 있다(Mitchell, 2008; Israel, 2012; Glass, 2015).

지역사회지리는 참여 지도제작과 더불어 현장 학습인 지리답사를 지역사회 문제 중심의 탐구형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하며 지역사회 협력 활동으로 연계시킬 수 있다. 지리답사는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정체성을 보여주

는 주요 교수-학습 활동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도모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 지리답사는 대학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교수자 주도의 수동적인 답사에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주어진 지식의 적용을 넘어 연구와 문제해결을 통해 지식을 만들어 내는 답사로 변화하였다. 지역은 관찰의 대상이자 야외 실험실이며 주민들의 거주 공간이자 윤리적으로 존중할 진정한 장소로(France and Haigh, 2018; 이종원, 2020), 지리답사는 대학교육의 지역사회 협력 활동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2. 지리답사와 지역사회 협력

지리학은 일상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장소와 지역에 기반을 둔 학문으로 지리답사는 수업 또는 연구에서 다루는 지리적 현상을 현장에서 경험하는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필수 활동이다(Phillips and Johns, 2012, 박경환 등 역, 2015). 지리답사는 현장에서 지리적 기술을 적용해보는 활동도 진행하며 교실에서 배운 지리 지식은 현실과 통합되고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이 실세계에서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도 학습하는 효과를 거둔다(France and Haigh, 2018; 이종원, 2020).

기본적으로 지리답사는 현장에서 진행되는 과목으로 이론과 실제 개념을 통합하는 수단이며 교실수업에 기초한 지식을 현실 활동과 더불어 재구성하고 특정 주제를 심화하는 학습이 가능한 활동이다. 또한 지리답사는 경험 학습으로 진행되어 '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수업 내용을 실제 문제와 연결해 지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부수적으로 교수와 학생 그리고 학생 간 인간관계, 협동심, 소통 능력, 자신감도 향상되고 동료학습과 발견의 기회가 되어 학생을 수동적 학습자에서 능동적 학습자로 변화시킨다.

지리답사는 기존 교실에서 배우는 이론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에서 점차 프로젝트 또는 문제해결 중심으로 변화하며 봉사 활동에 조사 활동을 더하는 다양한 참여로 학습 효과를 높이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Bednarz *et al.*, 2008; Hovorka and wolf, 2009; Bhakta *et al.*, 2015). 또한 보다 다양한 지리적 현상을 경험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범위도 국내에서 해외까지 포함할 수 있다(Glass, 2015; Taylor, 2020).

한국의 지리답사에 대한 관심은 초·중등학교 교육에서 답사 방법의 개발과 답사 효과 등의 연구로 나타나는데, 탐구형, 프로젝트 기반 답사, 지역조사와 면담의 질적연구, 기술활용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김민성·이창호, 2015; 이종원, 2020). 대학의 지리과 답사는 지리적 지식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조사 및 연구 방법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기술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며, 현장 답사로부터 경험하며 배우는 기회는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만들어 내는 활동으로 더욱 의미를 가진다(Hovorka and Wolf, 2009; Lawrence and Dowey, 2022). 그러나 국내의 대학 답사는 수업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식이 아직 주류를 이루고 답사 관련 연구도 많지 않다(윤옥경, 2009; 송언근, 2016).

대학의 지리답사는 더 나아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학습 활동으로 그리고 지역주민과 협력하는 조사 활동으로 발전시켜 대학교육에서 강조하는 서비스-러닝의 방향을 선도할 수 있다(Grabbatin and Fickey, 2012; Barcus and Trudeau, 2018; McPhee and Przedpelska, 2018). 대학교육은 서비스-러닝을 통해 교육에서 학습으로 변화하고, 봉사를 넘어 지역사회의 문제에 참여하며 현장 활동을 통해 학습 효과와 지역사회 문제 개선을 지향하고 있다(Dorsey, 2001; McEwen, 2013). 지리학은 지리답사를 포함한 일부 교과를 지역사회 참여 그리고 연구와 연계시키며 지역사회 문제 발굴과 개선에 공헌하기에 적합하다. 이러한 지리답사 활동은 또한 대다수의 대학에서 운영하는 봉사활동을 지역사회와의 협력하며 진행하고 대학교육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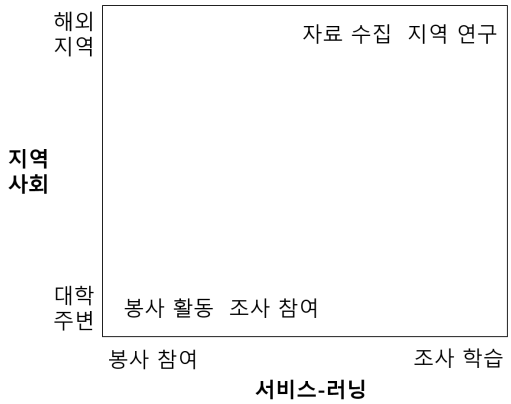


그림 4. 지리답사와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다양성

IV. 지리답사, 해외 봉사활동: 제주대학교 사례

1. 지리답사와 지리교육

국내 대학 지리과는 지리답사를 필수 교과 활동으로 포함한다. 지리답사는 교과 수업에서 다룬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형태가 보편적으로 여러 과목의 다양한 내용을 한 학기 한 번 정도의 답사를 통해 현장에서 확인하는 답사 경로를 만들어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여러 중요 장소나 대상에 대해 사전 자료 조사로 자료집을 만들고 현장에서는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답사를 진행해 특정 장소에서 조사나 면담 등의 활동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제주대학교 지리교육과는 지리답사를 매학기 한번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교과로 향토지리조사 및 실습, 지역지리조사 및 실습을 개설해 답사 준비와 발표 시간으로 활용한다. 이 과목들은 저학년의 경우 답사의 기초에 대한 내용, 자료 수집 등을 다루고 3학년이 되면 답사 지역과 주제에 대한 자료집 제작 작업을 주도하게 된다. 답사는 1학기는 제주 지역, 2학기는 육지부 지역 그리고 육지부는 수도-강원권, 호남-충청권, 영남권으로 구분해 재학 기간에 육지부 지역을 모두 답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6)]

다음에서는 제주대학교의 지리답사 그리고 해외봉사 경험을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을 지향한 활동으로 소개해 보고자 한다. 경험의 공유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본 연구자의 다변화 노력을 성과가 아닌 실험적 시도로 소개해 본다. 기본적으로 지리답사는 지역조사를 중심으로 진행을 시도했다. 더불어 대다수의 대학이 운영하는 해외봉사활동을 제주대학교는 지리학 전공자가 참여하여 지역사회 이해와 참여 활동으로 확장했다.

제주대 지리과 답사는 2017년 지방소멸을 주제로 정하고 조사 중심의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다. 우선 답사지는 지방소멸을 심각하게 경험하는 경북 의성 지역을 선정하고, 이곳에서 3박 4일의 집중 답사를 진행했다. 인솔 교수인 저자는 지역 조사와 연구 형태의 답사로 진행해 학생 논문 작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답사 전 학생들은 인구감소, 지방소멸과 관련한 다양한 글을 읽으며 사전 학습을 했다. 답사는 4개 조를 편성해 사전 준비로 의성 지역의 인구 감소 원인, 공동체 변화, 교육 기능, 지역경제 변화의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 기초 자료를 조사해 자료집을 만들었다. 자료집은 기초 자료와 더불어 현지에서 주민, 기관과의 면담과 질의를 통해 수집할 1차 자료와 관련된 내용, 특히 다양한 질문을 수록하여 각 주제의 팀원들이 현지에서 집중적으로 조사, 수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지에서는 의성군 안계면에 전체가 묵을 수 있는 숙소를 정하고 안계면을 포함한 인근 면 지역을 4개 주제를 각 조가 순환하며 지역주민과 지도자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첫날 지역주민에게 자신들을 소개하며 관계를 형성하고, 이어지는 면담을 통해 인구 감소 원인, 감소에 따른 생활 변화, 자생적 적응 노력 등을 주민들로부터 들어보고,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귀촌/농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기관을 방문해 자료를 수집했다. 학생들은 첫째 날 지역 주민, 특히 대다수인 노인분들과의 대화가 익숙하지 않아 예정보다 일찍 일정을 마치는 경우가 있었으나, 둘째 날부터는 주민과 라포가 형성되며 일정이 길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농산물을 선물로 받아오는 경우도 많았다.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조별 발표를 통해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과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여 공유하고, 다음날 지역을 바꾸어 조사를 나가는 팀에게 선행자의 경험을 나누었다. 경험 공유는 질문할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바로 잡고, 면담을 잘하는 팁을 서로 나누고, 조사 방향을 조정하기도 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현장 조사의 중요성은 면담을 통해 파악한 인구감소의 상황 중 기대와 다른 이야기는 청장년층의 노동력이 부족해 농사일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쌀농사의 경우 외지의 전문 농경인들이 기계를 동원해 농사를 대행하고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현지 노년 거주자들은 지역 인구 감소를 그다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교통비 지원 등으로 노인 인구의 공공서비스 이용도 크게 불편을 호소하지 않아 외부에서 인구감소를 문제화하는 기존 문헌에서의 관점은 현장 조사로 보완될 필요를 느꼈다.

답사 활동의 조사 내용은 학생들이 보고서 형태로 정리를 하고 지도교수와 논의하며 여러 차례 수정 작업을 거쳐 학술지 논문의 형태로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최종 보고서는 대학신문사에서 주관하는 대학생 논문경진대회 투고를 위한 원고로 발전시켜 매년 대학신

문사에서 실시하는 논문 공모전에 제출하였다. 보고서와 원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 학생들은 내용 구성, 문서 작성, 문헌 인용 방법 등의 수정 과정에 다양한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연구논문 작성법에 대해 배우게 되고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제주대학교 대학신문, 2017년 12월 27일자) 학생들은 성취감과 더불어 답사의 가치를 더욱 실감하는 기회가 되었다.

비록 지리답사 기간이 짧아 조사 활동이 제한적이었지만, 학생들은 문헌에서만 배우는 일반화된 인구감소, 지방소멸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현지에서 보다 깊이 있고, 다른 측면, 새로운 이면을 포착하며 현장 조사의 중요성을 또한 배울 수 있었다.[7] 답사를 마친 후 평가모임에서 노인분들은 젊은이들이 같이 대화를 나누어 준 것에 대해 매우 만족스러워하였고, 학생들 또한 대화의 시간 그리고 주민들의 가족,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다른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이러한 다른 사람과의 소통 능력을 기르고, 현장에 대한 기존 설명을 넘는 이해는 일반화된 담론을 비판하며 현장 활동 그리고 더 나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태도 측면에서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어 지리답사는 학습 효과를 높이며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중요한 활동으로 진행될 수 있다.

2. 해외봉사활동

해외에서의 봉사활동은 비용이 많이 들어 대학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해 대학 차원에서 여러 전공의 학생들을 모집해서 진행한다. 대학의 해외봉사활동은 보편적으로 현지의 초·중등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교육 활동을 위주로 하는데, 언어 차이로 인한 소통이 어려워 교과 내용을 다루기보다 기본적인 위생 교육, 재료를 사용하는 만들기 수업 등으로 소통의 문제를 해결한다. 현지에서는 오전에 수업 활동을 점심시간 전까지 진행하고, 오후에는 노력 봉사로 학교 환경정화나 건물 도색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정이다. 노력 봉사는 참가 학생의 인내력과 협동심을 기르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는데, 대학의 활동은 대다수 전문성이나 재정 투입 등이 부족해 시설 확충 등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노력 봉사를 개발도상국 지역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도모하는 활동으로 진행하면 서비스-러닝 형태의 학습 효과를 높이고 지역사회 협력의 기초를 다질 수 있다. 제주대학교는 사범대학 차원에서 2017년부터 여러 전공 학생을 선발해 방학 기간에 해외 교육봉사활동을 몇 차례 시행할 수 있었다.[8] 우선적으로 해외봉사활동은 사전 교육을 충실히 진행하지 않는 경우 참가자들이 시혜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주의에 사전 읽기 자료를 통해 참여 태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수업 활동을 위한 준비로 영어로 진행할 지도안을 작성하고, 수업 리허설을 모두가 모여 진행하며 내용과 전달 방법을 보완하였다(권상철, 2018).

개발도상국에서 봉사활동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이해를 위한 기초적인 조사 활동이 필요하며 이는 후속의 협력을 위한 활동에도 중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 현지 학교에서의 활동은 사범대학 학생의 기본인 수업을 진행하고, 추가적인 지역 조사는 마을 단위의 경관 조사와 더불어 수업 활동을 통해 라포가 형성된 현지 학생을 동행하며 마을 주민과의 대화나 면담을 진행했다. 현지 조사 활동은 교사에서 시작하여 점차 지역사회 지도층과 관계를 형성하며 정부 발행 자료와 정보를 얻었다.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은 상호성과 호혜성을 강조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그 시작이다(Rees *et al.*, 2020). 기본적으로 봉사활동이라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의 사고가 필요하고 '준다는 생각'이 아닌 '배운다는 생각'으로 활동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해외봉사활동, 특히 대학에서의 참여는 재원이나 전문성 등에서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도움을 주기보다는 참가 학생들의 경험학습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기에 더욱 수평적 관계를 염두에 둘 필요가 크다(권상철, 2018; Slinger-Friedman, 2018). 이러한 태도와 노력은 이후 현지 지역 주민과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 자료와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며 현지의 일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후속 연구 작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현지 활동에서 얻은 지역 통계는 스리랑카 남부의 인구 규모 약 7만 명의 카란데니야 지역으로 자연 환경, 인구, 경제, 사회 특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스리랑카어인 싱할라어로 작성된 이 자료는 현지 학생과 더불어 그리고 인터넷 번역기를 사용해 번역을 시도했다. 이 자료 정보는 현지 활동을 진행하는데 좋은 기초 자료가 되었다. 한국에 돌아와서 스리랑카 유학생의 도움으로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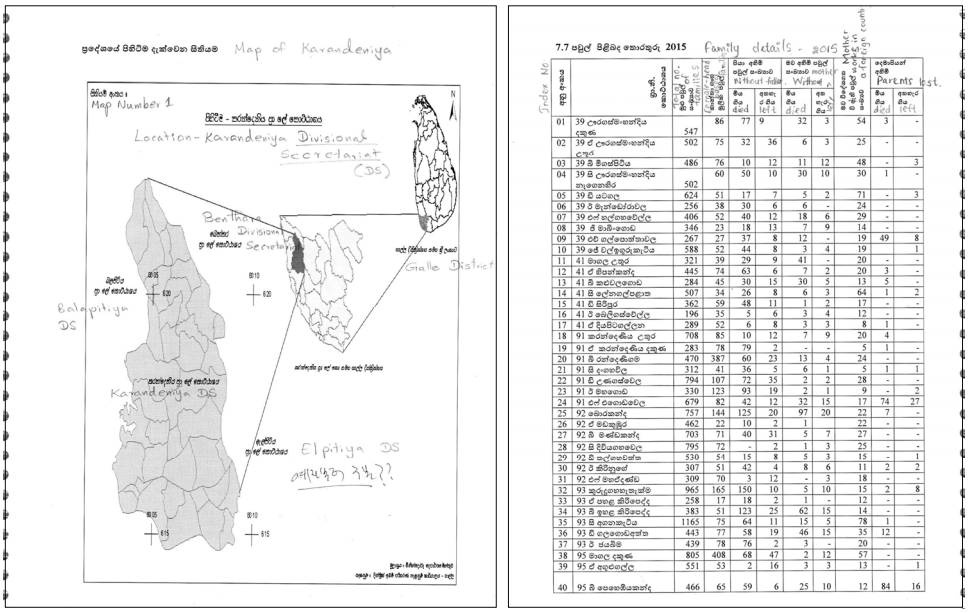


그림 5. 스리랑카 중서부 카란데니야 지방 행정통계 자료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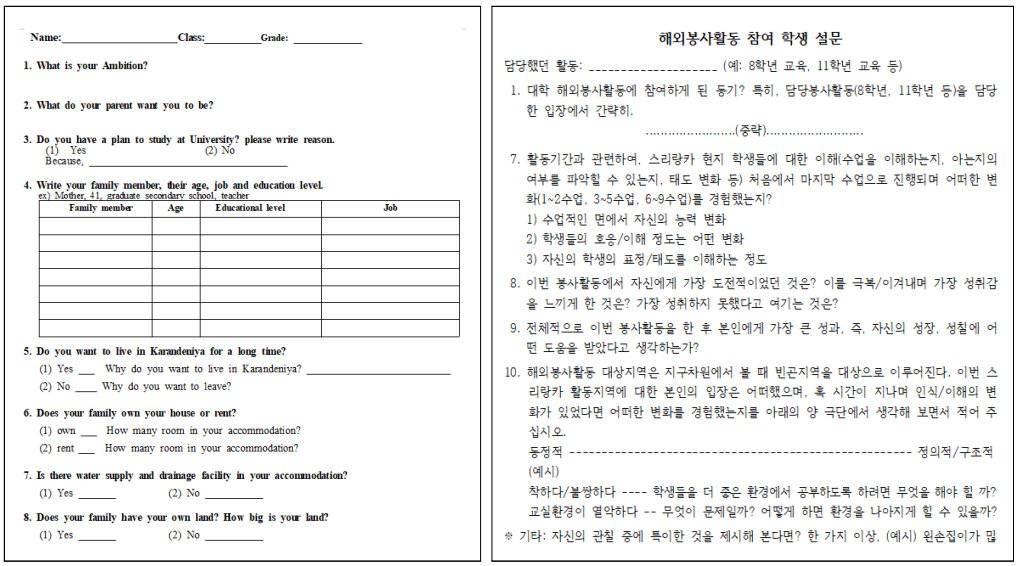
적인 내용을 번역하는 활동으로 이어졌다(그림 5). 자료는 기본적인 행정구역 지도를 제시하고, 내용으로부터 주민 80% 이상이 향료인 시너몬(Cinnamon)을 생계 기반으로 하는 환금작물 집중의 지역 경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한국의 지역 통계와 비교해 특이한 점은 인구 통계가 여성, 남성, 전체의 순서, 인종, 종교별 가구수, 가구 특성으로 편모, 편부, 해외 노동 편모, 소득 수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은 수업 교육활동 후 오후 시간을 이용해 개발도상국 지역사회 이해를 위한 다양한 조사 활동을 벌였다. 기초 조사로 현지 학생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가구 단위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했는데, 준비과정 자체도 의미있는 학습 활동이 될 수 있었다. 설문지는 우선 한글로 문항을 작성한 후 번역기를 사용해 현지 싱할라어로 변환을 하고 이를 현지 학생 몇 명에게 물어 이해 여부를 확인해 보았다. 많은 수의 문항은 이해를 하지 못했고 의도와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 학생과 더불어 용어 등 지역 맥락적 문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기술적으로는 한글을 영어로 변환한 후 수정하여 싱할라어로 변환하는 것이 훨씬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것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개발도상국 지역사회 이해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봉사활동에 참가한 학생의 인식과 태도를 포착하기 위한 내부 설문도 활동을 마치는 시점에 진행했다. 기본적으로 봉사활동 이후의 변화를 포착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는데 자신감과 대상 학생을 이해하는 소통 능력이 높아진 것을 가장 큰 성취로 언급했고, 소소하게 현지 학생 중 왼손잡이가 많고, 인종이 다양하다는 관찰 등은 새로운 경험이자 호기심을 일으키는 정보였다. 참여 학생이 지역주민, 현지 학생과 다양한 교류를 많이 만들었던 활동은 개발도상국 지역의 생계 기반과 더불어 빈곤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고 할 수 있다.

해외봉사활동은 아직 지역사회 참여와 협력 측면의 이해와 활동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아래와 같은 참가 학생의 기록에서 간접적으로 찾을 수 있었다(권상철, 2018):

>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 이것도 줄까, 저것도 줄까 고민하고, 한번이라도 아이들에게 더 웃어주려 하고 재밌게 해주려 하지 않았는가. 나는 바로 거기서 행복이 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 "우리가 (해외) 지역에 들어가면서 버려야 할 기본적인 생각은 내려놓기, 욕심 버리기인 것 같다. 그래야만 우리가 투입된 지역의 생태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지역에 녹아들 수 있기 때문이다."



Name:_____Class:_____Grade: _____

1. What is your Ambition?

2. What do your parent want you to be?

3. Do you have a plan to study at University? please write reason.
(1) Yes (2) No
Because, _____

4. Write your family member, their age, job and education level.
ex) Mother, 41, graduate secondary school, teacher

Family member	Age	Educational level	Job

5. Do you want to live in Karandeniya for a long time?
(1) Yes ___ Why do you want to live in Karandeniya? _____
(2) No ___ Why do you want to leave?

6. Does your family own your house or rent?
(1) own ___ How many room in your accommodation?
(2) rent ___ How many room in your accommodation?

7. Is there water supply and drainage facility in your accommodation?
(1) Yes _____ (2) No _____

8. Does your family have your own land? How big is your land?
(1) Yes _____ (2) No _____

해외봉사활동 참여 학생 설문

담당했던 활동: _____ (예: 8학년 교육, 11학년 교육 등)

1. 대학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 특히, 담당봉사활동(8학년, 11학년 등)을 담당한 입장에서 간략히.

.....(중략).....

7. 활동기간과 관련하여, 스리랑카 현지 학생들에 대한 이해(수업을 이해하는지, 아는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지, 태도 변화 등) 처음에서 마지막 수업으로 진행되며 어떠한 변화(1~2수업, 3~5수업, 6~9수업)를 경험했는지?
1) 수업적인 면에서 자신의 능력 변화
2) 학생들의 호응/이해 정도는 어떤 변화
3) 자신의 학생의 표정/태도를 이해하는 정도

8. 이번 봉사활동에서 자신에게 가장 도전적이었던 것은? 이를 극복/이겨내며 가장 성취감을 느끼게 한 것은? 가장 성취하지 못했다고 여기는 것은?

9. 전체적으로 이번 봉사활동을 한 후 본인에게 가장 큰 성과, 즉, 자신의 성장, 성칠에 어떤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10. 해외봉사활동 대상지역은 지구차원에서 볼 때 빈곤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스리랑카 활동지역에 대한 본인의 입장은 어떠했으며, 혹 시간이 지나며 인식/이해의 변화가 있었다면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는지를 아래의 양 극단에서 생각해 보면서 적어 주십시오.
동정적 ---------- 정의적/구조적
(예시)
착하다/불쌍하다 ---- 학생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도록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 까?
교실환경이 열악하다 -- 무엇이 문제일까? 어떻게 하면 환경을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 기타: 자신의 관찰 중에 특이한 것을 제시해 본다면? 한 가지 이상, (예시) 원숭집이가 밉

그림 6. 설문조사: 현지 중학생과 해외봉사 참가생 대상

해외봉사활동은 동정적에서 정의적으로의 인식 변화를 중요한 목표로 언급하는데, 이는 서비스-러닝이 비판적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를 지향하고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한국의 상황에 예비교사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와 지향점은 사전교육과 현지 활동을 통해 이해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참가자 자신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후자의 다른 지역에 대한 동등한 입장의 협력적 태도보다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해외봉사활동이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선 해외활동의 '봉사' 대신 '자원'으로 용어를 대치하고(권상철, 2018), 봉사활동에서 강조하는 상호적 관계(reciprocity)를 염두에 둔 활동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Mullens and Cuper, 2015; Rees *et al.*, 2020). 이러한 변화는 실제 국내와 해외 활동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에서 지향하는 목적에도 부합하기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지리답사와 해외봉사활동의 다변화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은 학습 효과를 높이고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는 활동으로 지리학은 교육과정에 지역조사, GIS 그리고 지리답사를 포함하여 기초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들 역량은 지리학의 사회 참여 전통을 만들었고 이 전통은 보다 체계화되어 여러 대학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 지리(community geography)로 지리학 내 분과로 성장하고 있다(Rock, 2021; Shannon *et al.*, 2021).

지리 교과의 지역조사 또는 지도학이나 GIS 수업은 대학 주변 지역사회에서 특정 주제를 선정해 조사하며 자료를 수집해 지도화하는 작업은 지역사회 지리의 핵심적 활동으로 직접적으로 지역사회의 변화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활동 결과의 자료 공유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 된다(Ryser *et al.*, 2013; Gribb, 2018). 지역사회 지리는 지리학에서의 지역사회 참여 노력으로 대학 교육의 변화를 위해 시작한 서비스-러닝이 비판적 안목과 지속가능한 장소 기반의 지역사회 협력으로 발전하는 지향으로 수렴한다.

지리답사는 학생들이 주도하는 탐구형, 프로젝트 형태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초·중등에서 학교 주변 지역의 특징을 다루는 지역 조사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박선영·김영호, 2019; 이종원, 2020). 그러나 대학의 경우 아직 교과 내용을 여러 지역에 걸쳐 단기간에 확인하는 답사가 주를 이루어 심층적인 조사나 연구 활동은 부족한 편이다(윤옥경, 2009).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에 비추어 지리답사도 해당 지역의 현안 등에 참여해 주민과 함께 새로운 현장 지식을 만들어가며 지역사

회 발전을 도모하는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주대학교에서 시도한 인구 소멸 지역에서의 지리답사는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내용을 논문 작성으로까지 발전시켰다. 현지에서의 조사와 직접 경험은 지방 소멸에 대한 이해와 깊이를 더해 주었다. 답사 내용을 논문으로 작성하고 공모전에 출품하는 과정은 학생들에게 내용 조직과 연구 능력을 길러주었다. 지역사회의 의미있는 주제를 선정해 조사 활동을 진행하는 지리답사는 문제 해결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현장 자료를 수집하여 후속 연구와 지역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킨 지역사회 협력 활동의 한 시도로 고려할 수 있다.

지역사회 참여와 협력을 위한 대학의 노력은 주변 지역사회의 빈곤에 대한 관심에서 광범위하게 해외 지역의 불평등한 상황을 포함하며 보다 다양한 접근과 비판적 안목을 키울 수 있다(Lemmons, 2015; McMorran, 2015). 그러나 해외 활동은 높은 비용을 필요로 해 대안으로 국내의 해외 이주자 집중지 등의 도움이 필요한 장소에서도 다양한 경험과 효과를 얻을 수 있다(Miller, 2013; Sobania, 2015; Hartman *et al.*, 2018), 또한 지리학은 공간 불평등과 지역 발전을 중요하게 다루는 전공으로 대학 차원의 해외 활동에 지리학도로 참여하여 비판적 안목과 장소에 기반한 지속적인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 활동을 선도할 수 있다 (Grabbatin and Fickey, 2012; Houston and Lange, 2018; Ozias and Pasque, 2019),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 활동은 많은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는데, 기본적으로 대학교육을 교수에서 참여로 변화시키며 학습효과를 높이고(김창환, 2020), 대학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책무감을 실천에 옮기고, 지역사회 또한 대학/생과의 공동작업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음과 동시에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맞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Siemers *et al.*, 2015; Rock, 2021). 지리학은 이러한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 추구에서 교실에서 배운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며 역량 개발과 책무감을 키우며 지역사회 발전에 일조를 하게 된다. 대학교육 전반적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장소, 지역에 기반한 지리학은 구체적인 지역사회 협력을 구성하고 확대하는데 역할할 수 있도록 기존 교과목과 교육과정을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V. 요약 및 결론

대학은 교육과 연구와 더불어 봉사를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발전을 도모하는 협력 활동으로 확대하고 있다. 서비스-러닝은 수업의 일부를 봉사 활동으로 진행하며 학생의 사회에 대한 인식과 학습 효과를 높이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다. 서비스-러닝은 점차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비판적 안목과 장소에 기반한 지속적인 상호 관계를 더하며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기반 학습, 장소기반교육 등 학문 분야별로 다양하게 불리며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늘리고 있다.

최근 대학은 사회 변화와 개혁을 위해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며 한국에서도 교육 활동의 일부를 지역사회 참여로 진행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에 대한 인식이나 참여는 일부 대학과 전공에 한정되어 있어 양적 그리고 질적 확대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은 대학교육을 지역사회의 현안과 연계시켜 진행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이며 동시에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도 공헌할 수 있는 상호적 관계와 협력을 도모하는 변화의 노력이다.

지리학은 장소와 지역에 기반한 학문 분야로 지역사회 활동은 중요한 교육과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은 탈산업화에 따른 실업과 빈곤 문제를 조사하며 그림지도 형태로 지역의 필요와 더불어 자산을 발전 잠재력으로 발굴하는 활동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지리학은 일찍이 도시 문제를 지역주민과 함께 지도로 제작하며 지역사회에 관심을 기울였다. 최근 이러한 전통은 대중참여 지역사회지도제작 활동으로 확대되어 지리학과를 중심으로 많은 대학들이 다양한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지도를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만들며 지역사회 지리로 발전하고 있다.

지리학과 지리교육은 지리정보체계와 지리답사를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어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리정보체계를 활용한 지역사회 지도제작은 최근 무료웹서비스 형태로 쉽게 이용 가능해 지역사회의 현안과 문제를 발굴해 조사하고 이를 지도 형태로 공유하는 활동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사회 지도제작을 지역사회 지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과 주민이 함께 지역의 문제와 자산을 발굴하는 현장 조사 활동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지리답사 또한 현장에서 수업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

어 국내 또는 해외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사전 이론 학습과 더불어 현지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세부적인 사회경제와 지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이론과 현실을 비교하며 다양한 안목과 대안적 발전을 모색하는 형태의 진행을 시도할 수 있다.

대학은 지역사회 협력을 기존 또는 새로운 교과에 현장 활동으로 포함시켜 학습 효과와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노력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역사회 지리는 지리학도와 지역사회 참여자가 협력하여 새로운 현장 지식을 만들어 가는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여러 대학의 다양한 교과와 지리답사의 다변화 시도는 아직 일반화된 틀은 갖추지 않았지만 각자의 경험을 제안적인 수준에서 사례로 공유하며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지역사회 협력 방식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리학은 장소 기반의 지역사회 참여의 전통을 지닌 분야로 대학교육과 지역사회가 함께 보다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과 공헌의 책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註

1) 미국의 캠퍼스컴팩트(Campus Compact)는 설립 초기부터 서비스-러닝 자료와 경험을 공유하는 활동을 중시해 홈페이지에 많은 대학의 교과목 교수계획서, 보고서 등을 게시하고, 자체적으로 단행본을 발간해 서비스-러닝 운영에 도움을 준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은 대학사회봉사협의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나 봉사활동 중심으로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김매이 등, 2014; Welch and Plaxton-Moore, 2019).
2) 시카고 북부 노스웨스턴대학교 정책연구소의 John L. McKnight and John P. Kretzmann교수는 4년간의 지역 연구를 통해 1993년 '*Building Communities from the Inside Out: A Path Toward Finding and Mobilizing A Community's Assets*'을 출간하며 자산기반 지역사회발전 접근을 확산하는 토대를 제공했다. 이 책은 현재 무료로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3) 연세대학교는 2018년 고등교육혁신원을 설치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표방하며 교과목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러닝 또는 지역사회협력(community engagement)이 보편적 용어이지만 일부 대학의 경우 민주시민참여(civic engagement)를 사용한다. 한국에서는 정치학과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주요 목표로 추진하며 지역기반교육을 이론적 배경으로 언급한다(김의영, 2016 참고). 대학의 지역사회 조사 활동은 대학생들이 참여 관찰을 통해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지역 상권과 상인의 고충 등을 수집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해 참가자들에게 성취감을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정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며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 일부 지역발전의 성과를 내고 있다(김의영, 2016; 이태동 등, 2017).
4) 대학의 지역사회 청지기 정신은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심 지역에 대학이 인접해 있을 때 특히 강조한다. 대학은 교육과 보건의 공공서비스를 주변 지역에 제공하는 거점인 앵커대학으로 역할하며 시설 제공과 더불어 대학의 다양한 역량 활용을 강조한다(Dostilio, 2017). 앵커대학은 종종 대학과 산업체의 협력을 통한 재정 확충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어 시민혁신과 사회기업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장후은·이종호, 2017; Willse *et al.*, 2020).
5) 지리학과 지역사회 협력 관련 학회지 특집호 출간은 다음과 같다: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의 Community Engagement for Student Learning in Geography(2008년), Geography, community engagement and citizenship(2013년), International geography field courses(2015년)를 들 수 있고, *The Professional Geographer*는 Out In the Word: Geography's Complex Relationship with Civic Engagement(2018년), *GeoJournal*의 Community Geography(2021년).
6) 제주대학교는 육지부 답사를 크게 3 지역으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종종 인솔 교수의 전공에 따라 자연지리, 역사지리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대표 지역을 답사지로 선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러 지역을 짧은 시간 내에 답사하는 방식은 유사하다.
7) 일반적으로 노동인력의 부족을 문제로 언급하지만, 실제 청년 농사대행업체가 기계화된 벼농사를 대부분 담당하고 있어 효율성은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지역은 마늘로 유명하지만 실제 답사를 통해서는 마늘보다 과일 농업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귀농인들도 이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8)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은 교육부의 예비교사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지원 글로벌교원양성사업(Global Teachers' University)에 선정되어, 글로벌과 다문화 관련 교육 봉사, 실습 등의 다양한 활동을 국내, 국외에서 진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2011,「제2의 탄생: 후마니타스 칼리지 시민교육교과 읽기교재」,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구순옥·남상준, 2019, "커뮤니티매핑 기반 참여적 환경지도 제작활동 효과,"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7(2), 131-145.

권상철, 2018, "해외봉사활동의 양면성과 도전: 봉사여행과 개발봉사 사이," 한국지리학회지, 7(3), 415-433.

권상철·오정훈, 2021, "서비스-러닝과 장소 기반 지역 협력을 통한 대학교육의 변화 지향,"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 23(4), 1-28.

김매이·이환·황희윤·김은혜, 2014, 대학 사회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 교육부.

김민성·이창호, 2015, "지리공간기술 기반 봉사학습 프로젝트: 지오투어리즘 관점에서의 지역사회 참여," 한국지도학회지, 15(3), 63-77.

김의영, 2016,「동네 안의 시민경제: 서울대생들이 참여 관찰한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사례」, 서울: 푸른길.

김창환, 2020,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을 강화하는 기제로써 대학의 사회적 책임(USR) 연구," 고등교육, 3(1), 25-54.

김형숙·이종원, 2021, "커뮤니티 매핑의 초·중등교육 활용 사례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56(5), 551-564.

박선영·김영호, 2019, "야외조사를 통한 고등학교 학생의 지리적 탐구 능력 향상 방안: 인천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8(1), 19-32.

배서현, 2017, "글로벌 서비스러닝 교과목의 효과성에 관한 기초연구: 캄보디아를 사례로," 글로벌교육연구, 9(3), 3-39.

손가현·김유나, 2020, "서비스러닝 교과목이 대학생의 시민성 형성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27(6), 101-130.

송언근, 2016, "사전조사가 탐구적 답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4(2), 1-16.

안미리, 2018, "교양교육과 연계한 서비스러닝의 사례연구," 문화와 융합, 40(5), 227-252.

안상훈·유조안·구양미·이유미·민기복·안성훈·오범조·한동헌·이지현·김수완, 2020,「대학사회공헌: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 7년의 경험과 과제」, 서울: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

윤옥경, 2009, "장소 중심의 답사를 통한 지역 이해의 가능성 탐색: 강원도 탄광지역 답사 실행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19(4), 199-213.

이종원, 2020, "지리답사 연구의 동향-학술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8(2), 39-56.

이태동 등, 2017,「마을학개론: 대학과 지역을 잇는 시민정치교육」, 서울: 푸른길.

장후은·이종호, 2017,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의 역할 제고 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3), 459-469.

Abbas, K., *et al*., 2017, *Higher education in the World 6. Towards a Socially Responsible University: Balancing the Global with the Local*, GUNI (Global University Network for Innovation).

Allahwala, A., Bunce, S., Beagrie, L., Brail, S., Hawthorne, T., Levesque, S., von Mahs, J., and Visano, B.S., 2013, Building and sustaining community- university partnerships in marginalized urban areas, *Journal of Geography*, 112(2), 43-57.

Barcus, H.R. and Trudeau, D., 2018, Introduction to focus section: Out in the world: Geography's complex relationship with civic engagement, *The Professional Geographer*, 70(2), 270-276.

Bednarz, S.W., Chalkley, B., Fletcher, S., Hay, I., Heron, E.L., Mohan, A., and Trafford, J., 2008, Community engagement for student learning in geography,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32(1), 87-100.

Bhakta, A., Dickinson, J., Moore, K., Mutinda, D., Mylam, A., and Upton, C., 2015, Negotiating the responsibilities of collaborative undergraduate fieldcourses, *Area*, 47(3), 282-288.

Cahuas, M.C. and Levkoe, C.Z., 2017, Towards a critical service learning in geography education: Exploring

challenges and possibilities through testimonio,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41(2), 246-263.

Dorsey, B., 2001, Linking theories of service-learning and undergraduate geography education, *Journal of Geography*, 100(3), 124-132.

Dostilio, L., 2017, Neighbourhood emplaced centers: A trend within American urban community-university engagement, *Transform: The Journal of Engaged Scholarship*, 1, 26-40.

Driscoll, A., 2014, Analysis of the Carnegie classification of community engagement: Patterns and impact on institutions, *New Directions for Institutional Research*, 2014(162), 3-15.

Fischer, H., Block, D., Bosse, A., Hawthorne, T.L., Jung, J.K., Pearsall, H., Rees, A., and Shannon, J., 2021, Doing community geography, *GeoJournal*, 1-14.

France, D. and Haigh, M., 2018, Fieldwork@ 40: Fieldwork in geography higher education,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42(4), 498-514.

Garcia, I., 2020,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ABCD): core principles, in Phillips, R., Trevan, E., and Kraeger, P., eds., *Research Handbook on Community Development*, UK: Edward Elgar Publishing, 67-75.

Glass, M.R., 2015, Teaching critical reflexivity in short-term international field courses: Practices and problems,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39(4), 554-567.

Grabbatin, B. and Fickey, A., 2012, Service-learning: Critical traditions and geographic pedagogy, *Journal of Geography*, 111(6), 254-260.

Gribb, W.J., 2018, Field experience through community engagement: A model and case study, *The Professional Geographer*, 70(2), 298-304.

Haines, A., 2009,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in Phillips, R. and Pittman, R.H., eds., *An introduction to community development*, NY: Routledge, 38-57.

Hartman, E., Kiely, R.C., Friedrichs, J., and Boettcher C., 2018, *Community-based Global Learning: the theory and practice of Ethical Engagement at Home and Abroad*, VA: Stylus Publishing.

Houston, S.D. and Lange, K., 2018, "Global/local" community engagement: advancing integrative learning and situated solidarity,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42(1), 44-60.

Hovorka, A.J. and Wolf, P.A., 2009, Activating the classroom: Geographical fieldwork as pedagogical practice,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33(1), 89-102.

Indianapolis Neighborhood Resource Center, 2012, *Organizer's Workbook: Tools to Support Your Awesome Neighborhood*.

Israel, A.L., 2012, Putting geography education into place: What geography educators can learn from place-based education, and vice versa, *Journal of Geography*, 111(2), 76-81.

Jung, J.K., 2018, Mapping communities: Geographic and interdisciplinary community-based learning and research, *The Professional Geographer*, 70(2), 311-318.

Kretzmann, J.P. and McKnight, J.L., 1993, *Building Communities from the Inside Out: A Path Toward Finding and Mobilizing a Community's Assets*, Chicago, IL: ACTA Publications.

Lawrence, A. and Dowey, N., 2022, Six simple steps towards making GEES fieldwork more accessible and inclusive, *Area*, 54(1), 52-59.

Lemmons, K., 2015, Short-term study abroad: Culture and the path of least resistance,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39(4), 543-553.

McEwen, L., 2013, Geography, community engagement and citizenship: Introduction,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37(1), 5-10.

McMorran, C., 2015, Between fan pilgrimage and dark tourism: competing agendas in overseas field learning,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39(4), 568-583.

McPhee, S. and Przedpelska, S., 2018, Experiential learning, community engagement, and student experience: Undergraduate field school course in rural British Columbia, *The Canadian Geographer/Le Géographe canadien*, 62(3), 372-383.

Miller, G., 2013, Education for citizenship: Community

engagement between the Global South and the Global North,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37(1), 44-58.

Mitchell, T.D., 2008, Traditional vs. critical service-learning: Engaging the literature to differentiate two models, *Michigan Journal of Community Service Learning*, 14(2), 50-65.

Mullens, J.B. and Cuper, P., 2015, A curriculum framework for faculty-led international programs in geography,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39(4), 504-512.

Ozias, M. and Pasque, P., 2019, Critical geography as theory and praxis: The community-university imperative for social change,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90(1), 85-110.

Pedregal, B., Laconi, C., and del Moral, L., 2020, Promoting environmental justice through integrated mapping approaches: the map of water conflicts in Andalusia (Spain), *ISPRS International Journal of Geo-Information*, 9(2), 130.

Phillips, R. and Johns, J., 2012, *Fieldwork for Human Geography*, London: SAGE Publications Ltd(박경환·윤희주·김나리·서태동 역, 2015,「지리답사란 무엇인가」, 서울: 푸른길).

Rees, A., Hawthorne, T., Scott, D., Solís, P., and Spears, E., 2020, Toward a community geography pedagogy: A focus on reciprocal relationships and reflection, *Journal of Geography*, 120(1), 36-47.

Robinson, J.A., Block, D., and Rees, A., 2017, Community geography: Addressing barriers in public participation GIS, *The Cartographic Journal*, 54(1), 5-13.

Rock, A.E., 2021, Bringing geography to the community: community-based learning and the geography classroom, *GeoJournal*, 1-13.

Ryser, L., Markey, S., and Halseth, G., 2013, Developing the next generation of community-based researchers: Tips for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37(1), 11-27.

Shannon, J., Hankins, K.B., Shelton, T., Bosse, A.J., Scott, D., Block, D., ... and Nicolas, A., 2021, Community geography: Toward a disciplinary framework, *Progress in Human Geography*, 45(5), 1147-1168.

Shek, D.T.L. and Hollister R.M., (eds.), 2017, *University Social Responsibility and Quality of Life: A Global Survey of Concepts and Experiences*, Berlin: Springer.

Siemers, C.K., Harrison, B., Clayton, P.H., and Stanley, T.A., 2015, Engaging place as partner, *Michigan Journal of Community Service Learning*, 22(1), 101-105.

Slinger-Friedman, V., 2018, Using active and applied pedagogies to develop sustainably minded citizens in geography, in Viakinnou-Brinson, L., ed., *Environment and Pedagogy in Higher Education (Ecocritical Theory and Practice)*, Lanham, MD: Lexington Books, 115-32.

Sobania, N.W., 2015, *Putting the Local in Global Education: Models for Transformative Learning through Domestic Off-campus programs*, VA: Stylus Publishing.

Spalding, R., 2013, "Daring to Volunteer": some reflections on geographers, geography students and evolving institutional support for community engagement in higher education,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37(1), 59-64.

Stanton, T.K., Giles, D.E., and Cruz, N.I., 1999, *Service-Learning: a Movement's Pioneers Reflect on Its Origins, Practice, and Futur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Taylor, M.J., 2020, Fieldwork along Nicaragua's Pacific Coast, *Journal of Coastal Research*, 101, 330-334.

Welch, M. and Plaxton-Moore, S., 2019, *The Craft of Community-Engaged Teaching and Learning: A Guide for Faculty Development*, Boston, MA: Campus Compact.

Willse, C., *et al*., 2020, Social Innovation and Civic Engagement: A Critical Praxis for Engagement in Higher Education, in McBride, A.M. and Mlyn, E., eds., *Connecting Civic Engagement and Social Innovation*, Boston, MA: Campus Compact, 135-161.

Yamamura, E.K. and Koth, K., 2018, *Place-based Community Engagement in Higher Education*, VA: Stylus Publishing.

제주대학교 대학신문, 2017년 12월 27일자, "농촌 지역 인구 감소, 대응책과 문제점: 경상북도 의성군 마을 주민 면담에 기초한 접근"

교신 : 권상철, 63243, 제주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kwonsc@jejunu.ac.kr)

Correspondence : Sangcheol Kwon, 63243, 102 Jeju-daehak-ro, Jeju, South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Email: kwonsc@jejunu.ac.kr)

투고접수일: 2022년 5월 27일
심사완료일: 2022년 6월 8일
게재확정일: 2022년 6월 12일